

RAID 0(스트리핑) 파일 복구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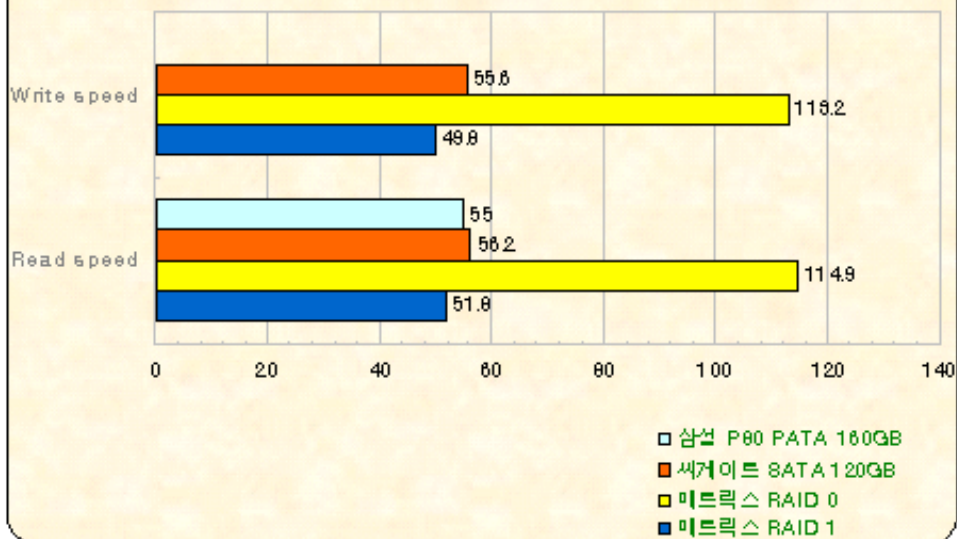
어레이 RAID 0(스트리핑)으로 S-ATA 하드 2개를 묶어서 사용하던 중 한쪽 하드디스크 상태가 불량으로 표시되면서 오락가락하던니 결국에는 RAID가 풀려버리고 말았다. 알다시피 스트리핑으로 묶어 놓은 하드는 성능향상이 있는 반면에 데이터 복구가 어렵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가득 채워놓은 160GB분의 데이터가 날아간 것이다.

눈앞이 캄캄하다.

일반 하드디스크처럼 MBR(마스터 부트 레코드)의 오류만 잡아주면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여분의 하드디스크에 OS를 별도로 설치하여 대대적인 삽질을 시작한다. 자체적으로 불량을 잡아주는 기능은 있어도 테이블을 복구하는 것은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옵션 ROM에서 어레이를 종전과 같은 환경(RAID 0 32GB, RAID 0 117GB 볼륨배분)으로 다시 잡아주었다. 데이터는 모두 날아간 상태, 하지만 복구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문득 떠오른 생각이, 왓싸리 뻥난김에 하드디스크를 하나 더 추가하여 3개까지 스트리핑으로 써볼 작정이었지만, ICH6R칩셋의 제한으로 RAID 0에서는 하드디스크를 2개이상 사용 할 수 없다고 한다. 이제 파일복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클러스터를 검색한다. 32GB를 검색하

HD-speed Transfer Rate



쓰기/읽기 속도 테스트 결과 (자료출처:kBench)

는데 4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동급 환경은 아니지만, 5400rpm 40GB E-IDE하드의 클러스터 검색 시간이 7시간 가량 소비되는 것에 비하면 양반이다. 그리고 보니 일반 하드디스크에 비해 RAID 0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클러스터를 검색하는 동안 비교자료를 찾아 보았다. 오호~ 이렇게 멋진 결과가!(더욱 자세한 자료를 원하시면,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기쁨도 잠시,(기빠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앗!) 두~둥~! 드디어 클러스터

검색이 끝났다. 비참하게도.... 파일이 모두 비정상이다. 10만여개 파일 중 상태가 정상인 파일은 4개 뿐...orz 오늘은 지쳐서 여기까지 하고, 32GB 볼륨은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어차피 '내 문서' 폴더 빼고는 복구할만한 것도 들어있지 않았으니... 아직 삽질은 끝나지 않았다. 자고일어나서 32GB에 윈도 설치하고 117GB 볼륨의 복구삽질을 계속 할 것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별도의 볼륨에 레이드1을 반드시 구성해 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을 여민다.